

『자앗디사 자따까』에 나타난 sacca의 용례와 의미  
- *Jayaddisajātaka*와 *Jayaddisajātakavaṇṇanā*를 중심으로 -

권예림\* 김경래\*\*

I. 서론

II. sacca와 sacca-pāramitā

III. 18가지 용례 분석

1. 약속

2. 사실과 서원

3. 결의로 증명된 사실

IV. 결론

\* 권예림(제1저자):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수료, jenny\_37@naver.com

\*\* 김경래(교신저자): 동국대학교 불교학부 부교수, wizkyung@dongguk.edu

## 요약문

본 논문은 sacca가 가진 다양한 함의를 『자얏디사 자따까(Jayaddisa jātaka)』와 『자얏디사 자따까 주석서(Jayaddisajātaka-vaṇṇanā)』의 용례들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sacca는 테라와다 전통의 10가지 빠라미따(pāramitā)의 일곱 번째 항목에 해당하며, 중요한 교학적 가치를 지닌 개념이다. 본 논문은 총 18개에 달하는 sacca의 용례를 분석함으로써 한 내러티브 내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갈래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첫째로, ‘약속을 지키는 자(sacca-anurakkhin)’라는 반복적 표현에서 sacca는 sandhi와 동의어로 취급되었다. 이는 금전적인 성격을 띠는 ‘합의(saṅgāra)’와는 구분되는 어휘로, 목숨을 담보로 하는 약속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총 7개의 용례들이 그러한 의미를 뒷받침하고 있다. 둘째로, 이 내러티브의 보살에 해당하는 인물인 알리나삿뚜(Alinasattu) 왕자가 위험한 상황에 놓이자 그의 가족들은 ‘서원(saccakiriya)’을 통해 그의 무사귀환을 빈다. 그 서원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실제로 일어난 ‘사실’로서의 sacca의 의미가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왕자의 어머니는 유사한 위기를 넘기고 살아 돌아온 라마(Rāma)의 이야기를, 그의 여동생과 아내는 자신이 목격한 왕자의 흠결 없는 행실을 서원의 근거로 삼는다. 여기서 사실로서의 sacca는 반복구 ‘이 사실로 말미암아(etena saccena)’로 정형화되며, 사실을 기반으로 ‘서원을 행하는 것(sacca+√kr)’과는 구별된다. 총 9개의 용례들이 두 번째 의미의 범주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내러티브 후반부에 알리나삿뚜를 수식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는 자(sacca-vādin)’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여기서 sacca는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는 알리나삿뚜의 결의(dhiti)와 긴밀한 연관성을 지닌다. 진실을 말하는 자로서의 자질은 두려움에 굽히지 않는 결의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약속으로서의 sacca와는 달리 영웅적 자질로서의 sacca 말하기는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행하기 어려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종류의 실천을 동반한다. 세 번째 함의를 통해 이 내러티브에서 사짜 빠라미따(sacca pāramitā)의 수행은 영웅적 진실(sacca)과 결의(dhiti)와 쌍을 이루는 개념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주제어 :

삿짜(sacca), 빠라미따(pāramitā), 삿짜 빠라미따(sacca pāramitā), 『자얏디사 자따까(Jayaddisajātaka)』, 『자얏디사 자따까 주석서(Jayaddisajātakavaṇṇanā)』

##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빠알리 문헌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단어인 *sacca*를 분석하는 것이다. *sacca*는 일반적으로 ‘진리’ 혹은 ‘진실’로 번역되는데, 맥락에 따라 다양한 함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인 논의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sacca*를 주제로 삼고 있는 텍스트인 『자얏디사 자따까(Jayaddisajātaka, 이하 Jay)』와 『자얏디사 자따까 주석서(Jayaddisajātakavannāna, 이하 JayV)』를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547개의 『자따까(Jātaka)』 내러티브 중 513번째에 해당하는 JayV는 본 텍스트인 Jay에 수록된 33개의 계송(64-96)을 주석하고 있다.<sup>2)</sup> 이 두 텍스트는 흥미로운 고대 인도신화와 풍부한 에피소드들을 동원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sacca*를 조망하고 있다. 등장인물을 중심으로 이 내러티브를 축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약키니와 셋째 왕자 (64송 이전 주석): 까뻬라(Kapilā)국의 왕비는 왕자를 낳을 때마다 식인 약키니(Yakkhini)의 습격을 받아 자식을 잃게 된다. 약키니가 셋째 왕자를 잡아먹으러 왔을 때 병사들이 이를 막았고, 약키니는 왕자를 납치해 도망간다. 그러나

1) 『자따까(Jātaka)』는 붓다의 전생 이야기를 담고 있는 약 2,500개의 계송들과 다양한 내러티브와 단어 해설을 바탕으로 이 계송들을 부연설명해주고 있는 주석서로 구성되어 있다. von Hinüber (1996), 54-55; 본 논문에서 논자는 원전(Mūla)에 해당하는 계송과 이를 주석하고 있는 주석서(Vannāna 혹은 Atthakathā)를 구분하여 Jay와 JayV로 나누어 표기했다. 본 논문에서 인용하고 있는 Jay와 JayV는 Digital Pāli Reader에서 제공하고 있는 제6차 결집본이며, 이 판본의 편집은 PTS 판본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 다만 참조용으로 각주에 PTS 판본의 페이지를 함께 기재했다.

2) 빠알리 주석전통에서 『자따까』는 총 550개의 내러티브로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남아 있는 것은 547개뿐이다. 그러나 실제로 이 문헌에 속해있는 복잡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러티브들의 정확한 개수를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붓다의 전생담은 지역마다 서로 다른 전승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Norman (1983), 79; von Hinüber (1996), 55.

갓 태어난 왕자에게 애정을 느끼게 된 약키니는 그를 공동묘지로 데려와 자식으로 기른다. 인육을 먹고 자란 셋째 왕자는 자신이 약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그러다 약키니가 죽자 그는 방황 끝에 숲 속에 들어가 생활하게 된다. 한편 왕비는 약키니의 방해 없이 넷째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는 장성하여 까빨라 국을 통치하는 자얏디사(Jayaddisa) 왕이 되어 알리나삿뚜(Alinasattu)라는 왕자를 낳게 된다.

(2) 자얏디사와 약카 (64-70송 주석): 어느 날 사냥을 나온 자얏디사는 우연히 숲 속의 약카를 만난다.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자얏디사는 사냥을 떠나기 전 만났던 브라만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왕국에 잠시 다녀오기를 간청한다. 약카는 자얏디사를 믿고 그를 풀어준다.

(3) 알리나삿뚜와 가족들 (71-82송 주석): 왕국으로 돌아온 자얏디사는 브라만과의 약속을 지킨 후, 알리나삿뚜 왕자에게 왕위를 물려준 뒤 약카에게 돌아가려 한다. 그러나 왕자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이 대신 약카의 처소에 가기를 자처한다. 떠나는 왕자의 무사귀환을 위해 가족들은 저마다 서원을 세운다.

(4) 약카와 알리나삿뚜 (83-96송 주석): 약카는 자신의 목숨을 의연하게 포기하는 왕자의 영웅적인 면모에 압도되어 그를 놓아준다. 알리나삿뚜 또한 약카가 자신의 큰아버지임을 눈치 채고 자얏디사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린다. 왕은 자신의 형에게 왕위를 바치지만, 그는 왕위를 거절하며 산 속에서 수행자의 삶을 살겠다고 선언한다.

이 내러티브 속에서 sacca는 중요한 핵심단어로 취급되며 총 20회 - 67송; 67송 주석; 69송; 70송; 74송; 74송 주석(2회); 78송 주석; 80송; 80송 주석(3회); 81송; 81송 주석; 82송; 82송 주석; 92송(2회); 종결부(2회) - 언급되고 있다. 그러나 종결부에 등장하는 두 개의 용례는 붓다의 가르침이 '진리'임을 서술하는 『자따까』의 정형구이다. 따라서 종결부 두 개의 용례들을 제외한 18가지 용례들을 통해 sacca의 의미를 검토해 보겠다.

## II. sacca와 sacca-pāramitā

본 단원에서는 용례분석에 앞서 sacca의 사전적 정의와 주석전통에서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sacca(Sk. satya)는 √as의 현재분사인 sat에 접미사 ya가 추가된 형태로 형용사로써는 ‘진실한’, ‘사실인’을 의미하고, 중성명사로서 ‘진실·진리(truth)’, ‘진심(sincerity)’, ‘덕스러움(goodness, virtue)’, ‘약속(promise)’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sup>3)</sup> 또한 문맥에 따라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의미로도 사용되는데, 이때는 주문(manta)과 동의어로 취급되기도 하고, 보호주(paritta)를 완성하는 핵심요소로 취급되기도 한다.<sup>4)</sup> (이에 대해서는 III-3에서 다시 논의할 것이다.)

빠알리 주석전통에 이르러 이 단어는 attha와 동의어로 취급되어 목적, 이익, 필요, 문제, 계약, 일, 재산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또한 그릇됨 혹은 사악함 등을 뜻하는 musāna pāpa의 반의어로도 언급되고, 덕스러움이나 올바름, 아름다움 등을 의미하는 kalyāṇa와 유의어로 해석되기도 한다.<sup>5)</sup>

『위숫디따가(Visuddhimagga, 이하 Vism)』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 sacca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이 sacca라는 단어는 다음과 같이 많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진리(sacca)를 말해야 하고, 화를 내서는 안 된다.’ 등에서는 말함에 있어서의 진리를 뜻한다. ‘사마나와 브라마나는 진리에 서 있다.’ 등에서는 절제함에 있어서의 진리를 뜻한다. ‘소위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대체 무엇 때문에 다양한 진리들을 설하는가?’ 등에서는 견해에 있어서의 진리를 뜻한다. ‘진리는 오직 하나이다. 다른 것은 없다.’ 등에서는 궁극적 진리인 열반과 [그 열반에 이르는] 길을 뜻한다. ‘네

3) Apte (1957), 1614; Rhys Davids (1921[1986]), 539; 초기불전연구원(2017), 158-159.

4) Rhys Davids (1890), 181; Thompson (1998), 130; de Silva (1981), 13.

5) Coomaraswamy (1939), 126-129; Cone (2001), 656; Cone (2020), 432-433.

가지 진리는 얼마나 많은 선함을 지니고 있는가?’ 등에서는 사성제를 뜻한다.<sup>6)</sup>

즉, *sacca*는 기본적으로 ‘진리’ 혹은 ‘진실’을 의미하지만, 그 용례에 따라 올바른 언어활동이나 종교적 절제 혹은 올바른 세계관, 더 나아가 열반과 수행도 및 사성제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의미로 활용될 수 있는 *sacca*는 주석전통 속에서 10가지 빠라미따(*pāramitā*) 목록에 편입되며 더욱 특수한 의미로 확장된다.

여성명사 *pāramitā*는 ‘최고의 단계에 이르는 실천’ 혹은 ‘특수하고 궁극적인 수행’, ‘행위의 완성’ 등을 의미하며 *pāramī*와 유의어로 사용된다.<sup>7)</sup> 상대적으로 후대, 즉 주석전통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이 용어는 보살(*Bodhisatta*)의 10가지 실천덕목으로 확립되는데, 특히 *Vism*는 브라흐마 위하라(*brahmā-vihāra*, 梵住 혹은 四無量心)를 빠라미따와 연결시키고 있다. 이에 따르면, 빠라미따라 불리는 열 개의 덕목들은 자(慈, *mettā*), 비(悲, *karuṇā*), 희(喜, *mudītā*), 사(捨, *upekkhā*)를 발전시킴으로써 완성된다. *Vism*가 정립하고 있는 10가지 빠라미따는 다음과 같다.<sup>8)</sup>

6) *Vism*, 16.26, “*idhāyaṃ saccasaddo anekesu atthesu dissati. seyyathidaṃ: saccam bhaṇe na kujjheyyā ti ādisu vācāsacce. sacce ʔhitā samaṇa-brāhmaṇā cā ti ādisu viratisacce. kasmā nu saccāni vadanti nānā, pavādiyāse kusalāvadānā ti ādisu diṭṭhisacce. ekaṃ hi saccam na dutiyan ti ādisu paramatthasacce nibbāne c’eva magge ca. catunnaṃ saccānaṃ kati kusalā ti ādisu ariyasacce.*”

7) Cone (2020), 443.

8) *Vism*, 9.124, “*imassa dātabbaṃ imassa na dātabban ti vibhāgaṃ akatvā sabba-sattānaṃ sukhanidānaṃ dānaṃ denti. tesam upaghātaṃ parivajjayantā silaṃ samādiyanti, silapari-pūraṇatthaṃ nekkhammaṃ bhajanti, sattānaṃ hitāhitesu asammohatthāya paññaṃ pari-yodapenti, sattānaṃ hitasukhatthāya niccaṃ vīriyaṃ ārabhanti, uttamavīriyavasena dhīrabhāvaṃ pattā pi ca sattānaṃ nānappakāraṃ aparādhaṃ khamanti, idaṃ vo dassāma karissāmā ti kataṃ paṭiññaṃ na viṣaṃvādentī, tesam hitasukhāya avicalādhittānā hontī, tesu avicalāya*

- (1) 보시(dāna): 줄 사람과 주지 않을 사람에 대한 분별없는 보시
- (2) 계(sīla):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실천하는 계
- (3) 출가(nekkhamma): 계를 완수하기 위해 세속을 떠남
- (4) 반야(pañña): 중생에게 이익인 것과 아닌 것에 대해 혼동하지 않기 위해 밝히는 지혜
- (5) 정진(viriya):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언제나 노력함
- (6) 인욕(khanti): 최고의 노력을 통해 확고함(dhīrabhāva)을 얻었음에도 중생들의 다양한 잘못들을 참고 견딤
- (7) 진리·진실(sacca): 약속(paṭiñña)을 지킴
- (8) 결심(adhiṭṭhāna): 이익과 행복을 위한 확고한 결심
- (9) 자비(mettā): 동요하지 않는 자비로 돌봄
- (10) 평온(upekkhā): 평정심으로 보답을 바라지 않음

Vism는 이 중 일곱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샷짜 빠라미따(sacca pāramitā)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보살들은] ‘우리가 그대에게 이것을 주겠다.’ ‘우리가 그대에게 이것을 해주겠다.’고 한 약속(paṭiñña)을 어기지 않는다.”<sup>9)</sup>

이처럼 Vism에서 sacca는 약속(paṭiñña)<sup>10)</sup>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샷짜 빠라미따는 ‘약속의 완수’를 의미한다. Vism를 번역한 초기불전연구원은 샷짜 빠라미따의 sacca를 paṭiñña와 동의어로 규

---

mettāya pubbakārino honti, upekkhāya paccupakāraṃ nāsimsanti ti evaṃ pāramiyo pūretvā yāva dasabala-catuvesāraja-cha-asādhāraṇañña-aṭṭhārasa-Buddha-dhammapabhede sabbe pi kalyāṇa-dhamme paripūrenti ti evaṃ dānādi-sabbakalyāṇa-dhammaparipūrīkā etā va honti ti.”

9) Vism, 9.124, “idaṃ vo dassāma karissāmā ti kataṃ paṭiññaṃ na visaṃvādentī.”

10) paṭiñña의 어근인 prati-√jñā는 ‘약속하다(to promise)’, ‘단언·확신하다(to affirm, assert)’, ‘제시하다(새 adduce)’, ‘확정하다(to confirm)’, ‘승인·합의하다(to approve, consent)’, ‘관찰하다(to observe)’, ‘제안하다(to propose)’, ‘후회하며 떠올리다(to remember with regret)’, ‘알게 되다(to become aware of)’ 등을 뜻한다. Apte (1957), 1072; Nānamoli (2011), 319-320; 초기불전연구원(2005), 192; Cone (2020), 98.

정하며 ‘서원’으로 번역했고, 나나몰리(Bhikkhu Nāṇamoli)는 ‘약속을 통해 확립된 신뢰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음(do not deceive)’으로 해석했다. 샷다세나(D. Saddhasena)는 이것을 ‘진실함(truthfulness)’으로 번역한 후 ‘타인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으로 정의했다.<sup>11)</sup>

보살, 즉 깨달음을 얻기 이전의 붓다는 수많은 전생을 거치며 세속적 욕망을 떨치고 모든 중생들을 위해 빠라미따라 불리는 이 10가지 덕목들을 실천하고 완성한 끝에 해탈에 이르게 된다. 특히 다음 단원에서 살펴보게 될 Jay와 JayV는 보살이 과거 생에서 샷짜 빠라미따(sacca-pāramitā)를 완성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sup>12)</sup>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들 두 텍스트에서 발견되는 sacca의 용례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샷짜 빠라미따의 내용도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11) Nāṇamoli (2011), 319-320; 초기불전연구원(2005), 192; Malalasekera (2004), 313b.

12) 식인괴수가 등장하는 내러티브는 다양한 형태로 전승되어 왔다. 이 내러티브의 전승과정 및 차이점, 그리고 샷짜 빠라미따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Watanabe (1909), 258 참고.

### III. 18가지 용례 분석

본 단원에서 살펴볼 18개의 용례들은 크게 세 가지 상황 속에서 sacca를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삿짜 빠라미따(sacca-pāramitā)’ 또한 세 가지 관점에서 해석된다. 자세한 용례분석을 통해 이를 살펴보겠다.

#### 1. 약속 (67송과 주석; 69송; 70송; 74송과 주석)

첫 4개의 용례들은 일상적인 ‘약속’ 혹은 ‘합의’를 의미하는 남성 명사 saṅgara를 도입하여 sacca와 구분되도록 서술하고 있다.

[67송:] “만약 협상으로 나를 풀어줄 것이 아니라면, [왕국에] 갔다가 잠시 후 아침에 돌아오겠다. 브라만에게 했던 그 약속(saṅgara)을 지키고서 [그대(약카)와의] 약속을 지키는 자(saccānurakkhī)로서 다시 돌아오겠다.”<sup>13)</sup>

[67송 주석:] ‘그 약속(saṅgara)을’[이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나는 ‘내가 그대에게 돈을 주겠소.’라며 브라만에게 약속했다(saṅgaro kato). 그 [돈]을 그 [브라만]에게 주고서 나는 [그대(약카)와의] 약속을 지켜(saccam anurakkhanto) 다시 올 것이다.<sup>14)</sup>

[69송:] “내가 브라만에게 재물을 기대하게 했다. 그 얽힌 약속(saṅgara)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브라만에게 했던 그 약속(saṅgara)을 지키고서 [그대(약카)와의] 약속을 지키는 자(saccānurakkhī)로서 다시 돌아오겠다.”<sup>15)</sup>

13) Jay, v.67; Ja. V, 24, “na catthi makkho mama nikkayena, gantvāna pacchāgamanāya paṇhe. taṃ saṅgaran brahmanassappadāya, saccānurakkhī punarāvajissan ti.”

14) JayV, v.67 주석; Ja. V, 24, “taṃ saṅgaran ti mayā dhanam te dassāmi’ti brahmanassa saṅgaro kato, taṃ tassa datvā imaṃ mayā vuttam saccam anurakkhanto aham puna āgamissāmi ti attho.”

[70송:] “너는 브라만에게 재물을 기대하게 했다. 그 얽힌 약속(saṅgara)이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브라만에게 했던 그 약속(saṅgara)을 지키고서 [나(약카)와의] 약속을 지키는 자(saccānurakkhi)로서 다시 돌아오라.”<sup>16)</sup>

내러티브 도입부에서 자얏디사는 사냥을 다녀온 후 브라만에게 100을 지불하고 계송을 구입하기로 약속했다. Jay와 JayV는 이 금전적인 약속을 saṅgara로 규정한다. 그리고 자얏디사와 약카 간의 약속, 즉 브라만과의 약속을 지킨 뒤 돌아와 목숨을 바치겠다는 약속은 sacca로 표현했다. 이처럼 첫 네 개의 용례들은 sacca가 ‘일반적인 약속(saṅgara)’과는 차별화된 것임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이후 이어지는 74송과 그 주석은 ‘결합’, ‘연결’, ‘합의’ 등을 의미하는 남성명사 sandhi를 sacca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74송:] “에야! 나는 너의 행동이나 말로 불쾌했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식인[약카]와 합의(sandhi)했기에, 약속을 지키는 자(saccānurakkhi)로서 다시 돌아갈 것이다.”<sup>17)</sup>

[74송 주석:] “내일 아침식사 시간에 돌아올 것이다.”라며 그 식인[약카]와 합의한 약속(sandhiṃ saccam)을 맺고 왔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며(saccam anurakkhanto) 나는 다시 그곳으로 갈 것이다. 너는 왕위를 물려받아라.” 라고 말한 것이다.<sup>18)</sup>

15) Jay, v.69; Ja. V, 25, “katā mayā brāhmaṇassa dhanāsā, taṃ saṅgaram paṭimukkaṃ na muttaṃ. taṃ saṅgaram brāhmaṇassappaḍāya, saccānurakkhī punarāvajissan ti.”

16) Jay, v.70; Ja. V, 25, “yā te katā brāhmaṇassa dhanāsā, taṃ saṅgaram paṭimukkaṃ na muttaṃ. taṃ saṅgaram brāhmaṇassappaḍāya, saccānurakkhī punarāvajassū ti.”

17) Jay, v.74; Ja. V, 26, “na kammunā vā vacasāva tāta, aparādhitoḥam tuviyaṃ sarāmi. sandhiṃ ca katvā purisādakena, saccānurakkhī punāhaṃ gamissan ti.”

위의 문구는 자얏디사가 왕국으로 돌아가 왕자에게 약카와 있었던 일을 알리는 부분이다. sandhi는 왕과 약카 간의 관계와 합의, 그리고 약속을 의미하는 단어로써 sacca와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다. 물론 ‘합의한 약속을 맺고서’로 번역한 sandhim saccam katvā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saccam을 형용사로 볼 경우 ‘진실한 합의를 하고서’, 부사로 볼 경우 ‘진실하게 합의하고서’ 등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74송 주석에 언급된 sandhi는 sacca와 상통하는 단어임을 알 수 있다.

이상 본 단원에서 다룬 sacca의 용례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총 4회 언급되고 있는 saṅgara(67송, 67송 주석, 69송, 70송)는 비록 ‘약속’이라는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왕과 브라만 간의 세속적이고 금전적인 계약관계를 묘사한다는 점에서 sacca와 다르다. 반면, 총 2회 언급되고 있는 sandhi(74송, 74송 주석)는 왕과 식인 약카 간의 합의를 의미하며 목숨을 담보로 한 약속을 지칭하고 있다. 이처럼 첫 7개의 용례들은 ‘약속’이라는 의미로 호환이 가능한 두 개의 단어인 saṅgara와 sandhi를 활용하여 왕이 약카와의 관계 속에서 완성하게 될 sacca를 부연설명하고 있다.

‘약속’이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상의 용례들 속에서 삿짜 빠라미 따는 ‘보호하다’, ‘지키다’는 의미를 지닌 어근 anu-√rakṣ를 통해 표현되고 있다. Jay에서 이 어근은 남성 단수 주격형태로 sacca와 목적격 땀뿌리사 복합어(Accusative Tappurisa Samāsa)를 형성한다(saccānurakkhi: 67, 69, 70, 74송). JayV에서는 이 복합어를 풀어서 설명해 주기 위해 현재분사 남성 단수 주격형태가 sacca의 단수 목적격과 함께 쓰이고 있다(saccam anurakkhanto: 67, 74송 주석). 이는 자얏디사가 약카와의 ‘약속을 지키는 자’로서, 혹은 그러한 ‘약속을 지키면서’ 다시 돌아와 죽음을 맞이할 것임을 의미한다. 내러티브 속에서 이 약속은 알리나삿뚜를 통해 완성된다.

18) JayV, v.74 주석; Ja. V, 27, “sve tava pātaraśakāle āgamiṣṣāmi ti tena purisādakena sandhim saccam katvā āgato, tasmā taṃ saccam anurakkhanto puna tattha gamiṣṣāmi, tvam rajjaṃ kārehi ti vadati.”

## 2. 사실과 서원 (78송 주석; 80~82송과 주석)

이어지는 9개의 용례들은 자얏디사 왕을 대신하여 약카의 거처로 가려는 알리나삿뚜 왕자로 인해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묘사하고 있다. 여기서 어머니와 누이, 그리고 아내는 왕자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며 저마다 서원을 세운다.

[78송 주석:] 그리고 [스승께서는] 왕자의 어머니와 누이, 아내가 행했던 서원(katam saccakiriyaṃ)을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또 다른 4개의 계송들을 읊으셨다.<sup>19)</sup>

위 인용구에서 ‘서원’으로 번역한 saccakiriya는 베다(Veda)문헌에서도 발견되는 전문용어이다. 이것은 ‘말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광범위한 전문용어로서, 결혼서약이나 약속처럼 ‘발화수반행위(illocutionary act: 말을 함으로써 화자가 수행하기로 의도된 행위)’를 나타내는 용어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특히 고대 인도 전통에서는 서약, 맹세, 저주, 축복 등 윤리적이거나 주술적인 의미는 물론, 기도가 지닌 초월적 능력을 믿는 자들이 행하는 선언 혹은 서원을 지칭하기도 했다.<sup>20)</sup>

실제로 이어지는 계송들에서 알리나삿뚜의 가족들은 아버지를

19) JayV, v.78 주석; Ja. V, 28, “mātārā bhaginibhariyāhi ca katam saccakiriyaṃ pakāsentō aparāpi catasso gāthā abhāsi.”

20) 리즈 데이빗(T.W. Rhys Davids)은 sacca-kiriya를 ‘엄숙한 고백이나 선언’ 혹은 ‘서약 선언’으로 해석했고, 버링게임(E.W. Burlingame)은 이 복합어를 크게 두 가지 의미 즉, ‘공식적으로 사실을 선언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결심 혹은 기도’로 구분했다. 반면, 톰슨(George Thompson)은 sacca-kiriya의 다양한 용례를 바탕으로 ‘주술적 행위’로 정의했으며, 윌슨(Liz Wilson)은 ‘자신이나 타인에게도 분명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엄숙한 발언’으로 정의했다. 엑켈(Malcom David Eckel)은 ‘윤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로 이 복합어를 해석했다. Rhys Davids (1921[1986]), 668; Burlingame (1917), 429; Thompson (1998), 125-153; Wilson (2016), 291; Eckel & Thatamanil (2001), 67.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한 왕자를 위해 저마다 서원을 세운다.

[80송:] 단다가 숲에 간 라마를 위해 아름다운 어머니가 마련했던 바로 그 안전함을 나는 너를 위해 만들 것이다. 신들이시여! 이 사실로 말미암아(etena saccena) 기억해 주십시오. 아들이여! 무사히 풀려나 돌아오기를.<sup>21)</sup>

[81송:] 공적으로든 사적으로든 증오심 따위를 저는 저의 오빠 알리나사뚜에게 결코 가져본 적 없습니다. 신들이시여! 이 사실로 말미암아(etena saccena) 기억해 주십시오. 오빠! 무사히 풀려나 돌아오시기를.<sup>22)</sup>

[82송:] 남편이시여! 당신이 저를 갈망하지 않으므로 저는 마음으로 당신을 불쾌해하지 않습니다. 신들이시여! 이 사실로 말미암아(etena saccena) 기억해 주십시오. 남편이시여! 무사히 풀려나 돌아오시기를.<sup>23)</sup>

80송에서 왕비는 과거 아들과 유사한 상황에서 살아남은 라마(Rāma)를 떠올리며,<sup>24)</sup> 신들이 그 사실을 기억하여 자신의 아들

21) Jay, v.80; Ja. V, 29, “yaṃ daṇḍakirañño gatassa mātā, rāmassa kāsi sotthānaṃ suguttā. taṃ te ahaṃ sotthānaṃ karomi, etena saccena sarantu devā. anuññāto sotthi paccehi putta.”

22) Jay, v.81; Ja. V, 29, “āvī raho vāpi manopadosaṃ, nāhaṃ sare jātu malīnasatte. etena saccena sarantu devā, anuññāto sotthi paccehi bhātika.”

23) Jay, v.82; Ja. V, 29, “yasmā ca me anadhimanosi sāmī, na cāpi me manasā appiyosi. etena saccena sarantu devā, anuññāto sotthi paccehi sāmī ti.”

24) 주석서에 따르면, 바라나시에 살며 어머니를 봉양하던 라마는 돈을 벌기 위해 단다가 왕이 다스리던 꿈바와띠로 떠나 9년간 일을 한다. 그의 효심에 감동한 신들은 꿈바와띠가 공격받아 파괴되었을 때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집으로 돌려보냈다; JayV, v.80 주석; Ja. V, 29, “eko kira bārāṇasivāsī rāmo nāma mātuṃposako mātāpitaro paṭijagganto vohārathāya gato daṇḍakirañño vijite kumbhavatīnagaraṃ gantvā navavidhena vassena sakalaratthe vināsiyamāne mātāpitūnaṃ guṇaṃ

또한 보살펴주기를 기도하고 있다. 81-82송에서 여동생과 아내는 이제까지 왕자가 보여준 미덕을 찬양하며, 이처럼 왕자가 올바른 삶을 살아왔음을 신들이 기억하여 그를 보호해 주기를 서원하고 있다. JayV는 이러한 Jay의 sacca 용례들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준다.

[80송 주석:] *etena saccena*란 다음과 같은 의미이다. 만약 신들에 의해 [라마]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온 것이 사실(*sacco*)이라면, 신들께서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etena saccena*) 나의 아들 또한 기억해 주소서. 라마처럼 [나의 아들]도 또한 데려와 저에게 주소서.<sup>25)</sup>

JayV는 80송을 아래와 같은 구조로 분석했다.

- |                          |                   |
|--------------------------|-------------------|
| (1) <i>sace A sacco,</i> | 만약 A가 사실이라면       |
| (2) <i>etena saccena</i> | 그 사실로 인해          |
| (3) <i>sarantu devā</i>  | 신들이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기를 |

여기서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아내가 언급하고 있는 *sacca*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명백한 사실’을 의미한다. 어머니에게 *sacca*는 라마의 무사귀환이었고, 동생에게는 알리나삿뚜의 선량함이었으며, 아내에게는 그와 함께 나누었던 사랑이었다. 이들은 모두 이러한 과거 사실들을 부디 신들이 기억해 주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신들의 힘으로 알리나삿뚜가 약카로부터 풀려나 안전하게 돌아오기(*anuññāto sotthi paccehi*)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81송 주석:] ‘나의 오빠 알리나삿뚜에 대해, 나는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나쁜 마음을 가졌던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즉,] 나는 그

---

sari. atha naṃ mātipuṭṭhāna-kammaṣṣa phalena devatā sotthinā āṇayitvā mātu adāṃsu.”

25) JayV, v.80 주석; Ja. V, 29, “*etena saccenā ti sace devatāhi tassa sotthinā ānītabhāvo sacco, etena saccena mamapi puttamaṃ sarantu devā, rāmaṃ viya tam pi āharitvā mama dassantū ti attho.*”

에 대해 나쁜 마음을 먹은 적이 없다.’라며 그의 여동생은 그렇게 서원을 행했다(*evam … saccam akāsi*).<sup>26)</sup>

[82송 주석:] ‘그리고 그대는 내 마음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며 함께 살았습니다.’라며 그의 왕비는 그렇게 서원을 행했다(*evam … saccam akāsi*).<sup>27)</sup>

80송 주석과 달리 81-82송 주석에서는 서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evam*으로 대체되었다. 대신 78송 주석에서 예고했던 것처럼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과 아내가 ‘행했던 서원(*katam saccakiriyaṃ*)’을 ‘서원을 행했다(*saccam akāsi*)’로 풀어서 서술하고 있다.<sup>28)</sup> 따라서 본 단원에서 살펴본 9개의 용례들은 구격 지시대명사와 함께 언급된 *etena saccena* (이 문구를 설명하기 위해 언급된 *sacco*도 포함)와 어근  $\sqrt{kr}$ 와 함께 등장하고 있는 *saccakiriyaṃ / saccam akāsi*를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다. 비록 이들은 모두 서원을 세우는 행위로 귀결되지만, 전자(*etena saccena*)는 서원의 근거가 되는 ‘사실’을 의미한다면 후자(*sacca+ $\sqrt{kr}$* )는 ‘서원을 행함’을 뜻한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다.

이상 살펴본 9개의 용례들 속에서 삿짜 빠라미따는 과거 사실들로 말미암아 서원을 세우는 행위(*sacca+ $\sqrt{kr}$* )로 표현되고 있다. 내러티브 후반부에서 알리나삿뚜가 무사히 귀환함으로써 이들이 세웠던 서원은 완성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을 선언하는 행위가 결국 소원의 성취로 귀결되는 강력한 힘을 지닌다는

26) JayV, v.81 주석; Ja. V, 29, “*ālinasatte mama bhātike ahaṃ sammukhā vā parammukhā vā manopadosaṃ na sarāmi, na mayā tamhi manopadoso katapubbo ti evam assa kaniṭṭhā saccam akāsi.*”

27) JayV, v.82 주석; Ja. V, 30, “*mayham pi ca manasā tvaṃ appiyo na hosi, aññaṃaññaṃ piyaṃvāsāva mayan ti evam assa aggamaheṣi saccam akāsi.*”

28) ‘*saccakiriyaṃ kar-*’ 형태가 ‘*satyaṃ  $\sqrt{kr}$* ’에서 기원했을 가능성, 그리고 ‘*saccakiriyaṃ kar-*’를 ‘*saccam kar-*’와 동일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Thompson (1998), 131-132 참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원에서 다룰 sacca의 용례들은 그러한 서원의 실현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 알리나삿뚜의 자질과 관련되어 있다.

### 3. 결의로 증명된 진실 (92송)

내러티브 후반부인 92송에 언급된 두 개의 용례는 알리나삿뚜 왕자와 약카 간의 만남 직후 등장한다. 여기서 약카는 불을 지피 왕자를 구워먹겠다고 협박한다. 주석서에 의하면, 이는 왕자가 도망갈지 시험해 보기 위한 약카의 묘안이었다. 그러나 왕자가 의연하게 장작을 구해 불을 지피고서 자신을 잡아먹으라고 말하자 약카는 두려움을 느끼며 이렇게 말한다.

[92송:] 누가 이런 자를 잡아먹을 자격이 있겠는가? 덕스럽고, 진실을 말하고(saccavādiṃ), 관대한 이런 자를! 이러한 진실을 말하는 자(saccavādiṃ)를 잡아먹는 자, 그 자의 머리 또한 일곱 갈래로 박살날 것이다.<sup>29)</sup>

약카의 독백에서 발견되는 두 개의 용례는 어근 √vad(‘말하다’)가 결합된 복합어 sacca-vādin의 남성 단수 목적격 형태이다. 이 복합어의 사전적 의미는 ‘진실을 말하는(speaking the truth)’ 혹은 ‘진실한(truthful)’이다.<sup>30)</sup> 그러나 이 내러티브 속에서 약카가 두려워했던 ‘진실을 말하는 자(sacca-vādin)’란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자(sacca-anurakkhin)가 아니다. 앞서 살펴본 약속으로서의 sacca가 자신이 계약한 바를 수행한다는 다소 제한적인 차원에서 실천된다면, 여기서의 sacca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혹은 타인의 시험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영웅적 결의를 전제로 한다. 알리나

29) Jay, v.92; Ja. V, 33, “ko tādisaṃ arahati khāditāye, dhamme ʔitam saccavādiṃ vadaññuṃ. muddhāpi tassa vipahaleyya sattadhā, yo tādisaṃ saccavādiṃ adeyyā ti.”

30) Rhys Davids (1921[1986]), 668.

삿뚜의 결의는 붓다의 목소리로 대변되는 Jay의 서술자(narrator)에 의해 다음과 같이 묘사된다.

[90송:] 그리고서 실로 결의에 찬(dhitimā) 왕자는 장작을 모아서 큰 불을 지피고서 이에 대해 [약카에게] 알렸다. “여기 타오르는 큰 불이 준비됐다.”<sup>31)</sup>

이처럼 결의(dhiti)는 이 자따까의 보살, 즉 알리나삿뚜가 가진 덕성 가운데 하나로서 식인 약카를 감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또한, 내러티브 초반에 약카를 처음 마주한 자얏디사와 알리나삿뚜의 대조적인 모습을 통해 두려움을 대하는 이들의 극명한 차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자얏디사] 왕은 약카를 보고서 겁에 질려 다리가 마비되어 도망갈 수 없었다.<sup>32)</sup>

[알리삿뚜] 왕자가 계송을 말했다. “나는 그대가 잔혹한 식인귀라는 것을 안다. 숲에 사는 그대를 모르는 바 아니다. 나는 자얏디사의 아들이다. 아버지를 풀어주는 대신 나를 당장 먹어라.”<sup>33)</sup>

약카를 처음 대면하는 왕과 왕자의 서로 다른 태도 속에서 약카는 자얏디사 왕은 자신의 먹이로, 알리나삿뚜 왕자는 인정의 대상으로 인식한다. 또한 왕은 자신을 놓아줄 것을 청하며 스스로를 ‘약속을 지키는 자’라고 자칭했지만, 자신의 결의를 증명한 왕자는

31) Jay, v.90; Ja. V, 32, “tato have dhitimā rājaputto, dāruṃ samāharitvā mahantamaggiṃ. santīpayitvā paṭivedayittha, ādīpito dāni mahāyamaggi ti.”

32) JayV, v.65 주석 도입부; Ja. V, 23, “rājā yakkhaṃ disvā bhīto ūrutthambhaṃ patvā palāyitum nāsakkhi.”

33) Jay, v.84; Ja. V, 30, “jānāmi ludda purisādako tvam, na taṃ na jānāmi vane vasantaṃ. ahañ ca puttosmi jayaddisassa, mam ajja khāda pituno pamokkhā ti.”

약카에 의해 ‘진실을 말하는 자’로 불린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나아가, *sacca-vādin*이 지닌 특수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앞서 간략히 언급했던 *sacca*의 확장된 의미, 즉 이것이 주문(*manta*)이나 보호주(*paritta*)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각주 4). *sacca-vādin*은 스리랑카 주석서에서 ‘진리를 암송하는 자(*satyagāyana*)’ 혹은 ‘주문(*manta*)을 아는 자’로 해석되어 왔다. 실제로 베다 전통에서 *satya-mantra*는 복합어로서 ‘효력 있는 주문을 지닌 자’를 지칭했다.<sup>34)</sup>

한편, *sacca*는 *paritta*와도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paritta*는 어근 *pari+√trā* (보호하다)에서 파생된 것으로 빠알리 전통에서는 산스크리트 *paritrāṇa*에서 어미가 탈락된 형태로 사용된다. *paritta*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닌다.<sup>35)</sup>

- (1) 호신(護身)을 일으키는 숫따나 설법을 암송하는 행위.
- (2) 호신의 효과를 지닌 숫따들의 모음집.
- (3) 이러한 모음집을 암송하는 종교의식.

앙굴리말라 빠릿따(*Angulimāla Paritta*)는 대표적인 보호주 중 하나로 이 보호주는 『앙굴리말라 숫따(*Āṅgulimāla Sutta*)』에서 기원한다. 살인마에서 붓다의 제자로 전향한 앙굴리말라는 출산으로 고통 받는 여인을 보며 탄식한다. 그러자 붓다는 ‘사실(*sacca*)’에 입각한 문구를 만들어 그에게 전한다. 앙굴리말라가 여인을 찾아가 그 문구를 전해주자 여인과 아이는 안정을 찾는다.

“여인이여! 저는 성자로 [다시] 태어난 이후부터 의도적으로 산 자로부터 생명을 빼앗은 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tena saccena*) 그대가 안전하기를. 태아가 안전하기를.”<sup>36)</sup>

34) Thompson (1998), 130-131.

35) de Silva (1981), 3-4.

36) MN II, 139, “*yato aham, bhagini, ariyāya jātiya jāto nābhijānāmi sañcicca pāṇaṃ jīvita vopetā. tena saccena sotthi te hotu sotthi gabbhassā ti.*”

이처럼 ‘앙굴리말라 빠릿따’는 앙굴리말라가 몸소 실천했던 ‘사실(sacca)’과 중생을 향한 ‘자비(mettā)’가 텍스트화 된 것으로서, 이는 일종의 주술적 힘을 지니고 있기에 이를 암송하는 자는 특수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빠릿따는 자비(mettā)와 진실(sacca)로 완성되는데, 이들 두 가지 요소는 상호보완관계에 있다. 진심을 다해 진지하게 선언했을 때, 진실(sacca)은 원하는 바를 이루게 하는 힘을 지니게 된다. 진실이 강력한 힘을 수반한다는 믿음은 불교전통 뿐 아니라 전반적인 고대 인도전통에서 일반적으로 공유되던 신앙이었다. 실제로 위의 문구는 ‘앙굴리말라 빠릿따’로 여겨지며 현재까지도 출산을 앞둔 여인들을 위한 주문으로 사용되고 있다.<sup>37)</sup>

Jay의 약카 또한 앙굴리말라의 전생임을 고려했을 때, 그가 sacca 개념과 풍부한 연관성을 지닌 인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앙굴리말라 빠릿따가 자비(mettā)와 진실(sacca)을 결합하듯이, 92송에서 ‘진실을 말하는 자(sacca-vādin)’는 보살의 결의(dhiti)와 진실(sacca) 사이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암시한다. 결국, 이 내러티브에서 삿짜 빠라미따는 결의와 진실됨이라는 두 가지 기조를 통해 초월적인 힘을 완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물을 중심으로 볼 때, 자얏디사와 연관된 sacca는 빠라미따와는 무관하게 어떠한 내용의 약속도 가리킬 수 있다. 그러나 영웅적 결의와 결합된 알리나삿뚜의 sacca는 그것을 듣는 이로 하여금 감화를 받게 하는 성격을 띤다. 그 결과로, 식인을 일삼는 약카는 ‘진실을 말하는 자’인 왕자를 놓아주고 수행자가 되었다.

## IV. 결론

‘진실’ 혹은 ‘진리’를 의미하는 *sacca*는 주석전통에 이르러 더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전문용어로 활용된다. *Vism*는 이 단어가 맥락에 따라 언어활동이나 관점, 질제, 열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진실’ 혹은 ‘진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이것이 보살의 덕목을 열거하는 빠라미따의 목록에 포함될 경우 ‘약속(*paṭiñña*)의 완수’를 의미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sacca*의 의미를 좀 더 명확히 살펴보기 위해 *sacca*를 주제로 삼고 있는 *Jay*와 *JayV*의 18개 용례들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7개 용례들 속에서 *sacca*는 ‘약속’을 의미했다. *Jay*와 *JayV*는 약속과 합의를 뜻하는 유의어 *saṅgara*와 *sandhi*를 함께 언급하며 *sacca*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얏디사가 브라만과 맺은 세속적인 약속은 *saṅgara*로서 이는 *sacca*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자얏디사가 목숨을 담보로 약카와 맺은 약속은 *sandhi*로서 *sacca*와 같은 범주에 해당된다. 즉, *sacca*는 세속적인 약속이 아닌 죽음을 불사하는 약속이며, 이러한 맥락은 ‘약속을 지키는 자(*saccānurakkhī, saccam anurakkhanto*)’라는 표현으로 형상화된다.

둘째, 9개의 용례들 속에서 *sacca*는 ‘사실’과 ‘서원’을 의미했다. 자얏디사를 대신하여 죽음을 선택한 알리나삿뚜를 위해 어머니와 누이, 그리고 아내는 왕자의 무사귀환을 위한 서원을 세운다. 신들의 힘을 요청하는 이 서원은 이전에 벌여졌던 명백한 사실들을 바탕으로 성립된다. 여기서 *sacca*는 라마의 귀환, 올바른 성품, 사랑스러운 남편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의미한다. 이 때 삿짜 빠라미따는 ‘서원을 세우는 것(*saccakiriyaṃ, saccam akāsi*)’으로 표현되며, 이는 알리나삿뚜의 무사귀환으로 완성된다.

셋째, 2개의 용례들 속에서 *sacca*는 ‘영웅적 결의’를 의미한다.

약카는 죽음을 불사하며 자신의 결의를 지켜내는 알리나삿뚜를 보고 두려움을 느끼며 그를 ‘진실을 말하는 자(saccavādin)’로 규정한다. 고대 인도전통에서 진실(sacca)은 강력한 힘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는 불교전통 속에서 경전을 암송하며 특정한 힘을 발휘하는 빠릿따(paritta, 보호주) 전통으로 정착되었다. 알리나삿뚜는 아버지를 대신하여 죽음을 택했고, 이것은 그의 확고한 결의로서 진실이 된다. 여기서 샷짜 빠라미따는 진실을 말하는 자(saccavādin)로 설명되고 있으며,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알리나삿뚜의 태도는 이것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 살펴본 것처럼, 단일 내러티브 속에서도 sacca의 의미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비록 ‘진리’ 혹은 ‘진실’이라는 기본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sacca는 맥락에 따라 다각적인 함의를 지닌 개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sacca의 다양한 의미파악은 해탈을 위한 보살의 덕목 중 하나인 샷짜 빠라미따의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이에 본 논문에서 다룬 Jay와 JayV 이외의 추가적인 텍스트에서 sacca와 연관된 개념들의 복합적인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sacca와 관련된 논의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Ja* : *The Jātaka Together with Its Commentary: Being Tales of the Anterior Birth V*, ed. by V. Fausbøll, London: Kegan Paul Trench Trübner & Co., 1891.

*Jay* : *Jayaddisajātaka*,  
[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loc=k.13.0.0.15.0.2.m](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loc=k.13.0.0.15.0.2.m) (검색: 2025년 12월)

*JayV* : *Jayaddisajātakavaṇṇanā*,  
[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loc=k.13.4.0.0.2.0.a](https://www.digitalpalireader.online/_dprhtml/index.html?loc=k.13.4.0.0.2.0.a) (검색: 2025년 12월)

*MN* : *Majjhima-Nikāya II*, ed. by Robert Chalmers,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1977.

*Vism* : *Visuddhimagga*, ed. by Walter Eugene Clark, The Harvard Oriental Series Vol. 41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0.

Apte, Vaman Shivaram (1957), *The Practical Sanskrit-English Dictionary* <https://dsal.uchicago.edu/dictionaries/apte/>  
(검색: 2025년 12월)

Burlingame, Eugene Watson (1917), The Act of Truth (saccakiriyā): Hindu Spell and Its Employment as a Psychic Motif in Hindu Fiction.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ume 49, Issue 3: 429-467.

Cone, Margaret (2001), *A Dictionary of Pāli*. Part I. Bristol: The Pali Text Society, 2001.

Cone, Margaret (2020), *A Dictionary of Pāli*. Part III. Bristol: The Pali Text Society, 2020.

Coomaraswamy, Ananda K. (1939), Some Pali Words, *Harvard*

-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4, No.2, 116-190.
- de Silva, Lily (1981), *Paritta: A Historical and Religious Study of the Buddhist Ceremony for Peace and Prosperity in Sri Lanka*. Colombo: National Museums of Sri Lanka.
- Eckel, Malcolm David & Thatamanil, John J. (2001), “With Great Noise and Mighty Whirlpools the Ganges Flowed Backwards”, *Religious Truth*, ed. by Cummings Neville,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Gombrich, Richard F. (2006[1996]), *How Buddhism Began: The Conditioned Genesis of the Early Teachings*, New Delhi: Munshiram Manoharlal.
- Malalasekera, G.P. (2004), *Encyclopaedia of Buddhism Vol. VII*, Colombo: The Government of Sri Lanka.
- Ñāṇamoli, Bhikkhu (2011), *The Path of Purification*, Kandy: Buddhist Publication Society.
- Norman, K.R. (1983), *Pāli Literature: Including the Canonical Literature in Prakrit and Sanskrit of All the Hīnayāna Schools of Buddhism*, Wiesbaden: Otto Harrassowitz.
- Rhys Davids, T.W. (1890), *The Questions of King Milinda*, Oxford: The Clarendon Press. Available online, <https://archive.org/details/questionsofkingm028266mbp/page/n233/mode/2up> (검색: 2026년 1월)
- Rhys Davids, T.W. (1921[1986]), *Pali Text Society Pali-English Dictionary*, London: The Pali Text Society.
- Thompson, George (1998), On Truth-Acts in Vedic, *Indo-Iranian Journal*, Vol.41, no.2, 125-153.
- von Hinüber, Oskar (1996), *A Handbook of Pāli Literature*, Berlin: Walter de Gruyter.
- Watanabe, K. (1909), The Story of Kalmāṣapāda and Its Evolution in Indian Literature, *Journal of the Pali Text Society* VI, 236-310.
- Wilson, Liz (2016), “Murderer, Saint, and Midwife: The Gendered

Logic of Engendering in Buddhist Narratives of  
Aṅgulimāla's Conversion", *Refiguring the Body:  
Embodiment in South Asian Religions*, ed. by Barbara  
A. Holdrege & Karen Pechilis,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초기불전연구원(2005), 『청정도론 2』,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초기불전연구원(2017),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2권』, 울산:  
초기불전연구원.

## Abstract

# Observations on the term *sacca* in the *Jayaddisa Jātaka* and its Commentary

Kwon, Yealim & Kim, Kyungrae  
Dept.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

This paper aims to scrutinize and display the complexity of the concept *sacca* (*satya*) in the narrative of the *Jayaddisa Jātaka* and its commentary. Based on narrative analysis, three distinctive fields of meaning are identified. Firstly, *sacca* as a promise is represented by the formula *sacca-anurakkhī*. This usage has *sandhi* and *patiññā* as its synonyms and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saṅgāra*, by which a transactional agreement is suggested. Secondly *sacca* in the truth-act (*saccakiriya*) of the family members of the endangered prince Alīnasattu is best interpreted as a credible fact which has taken place in the past. This fact is related in each *saccakiriya* based on the deep-rooted belief that a wish should be manifested by the power of employing a reliable past event in one's speech. Thirdly, the phrase *sacca-vādin* at the latter part of the story combines together *sacca* and *dhiti* ('resolution'), of which the perfection of the truth (*sacca pāramitā*) consist in the narrative of the *Jayaddisa Jātaka* and its commentary.

**Key Words** : *sacca*, *pāramitā*, *sacca pāramitā*, *Jayaddisajātaka*,  
*Jayaddisajātakavaṇṇanā*

www.kci.go.kr